



주저앉은 선발투수 김진우

점수 못내는 KIA 버티던 선발도 무너졌다

물먹은 방망이·구멍난 수비 '속수무책'
SK에 0-3 완봉패 ... 6연패 수렁에



갈 길 바쁜 '호랑이 군단'이 6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경기에서 0-3의 영봉패를 당했다. 주말 SK와의 3연전에서 싹쓸이 패를 기록한 KIA는 5연패의 부진에 빠졌다. SK와의 격차는 4.5게임차까지 벌어졌다. 반면 6위 넥센과의 격차는 0.5게임차까지 좁아들었다. KIA 김진우와 SK 김광현의 '괴물' 맞대결에서 타선의 지원을 얻은 김광현이 승자

가 됐다. 1·2회 두 선발 투수는 3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는 위력적인 투구로 맹활약한 투수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4회2사에서 김진우가 먼저 강판되면서 기대했던 투수전 흐름이 깨졌다. 3회 사사구 두 개를 내주며 흔들렸던 김진우가 4회 1사에서 불넷 두 개를 연달아 내주며 위기를 자초했다. 박진만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투아웃을 만들었지만 정상호와의 승부에서 투볼 투스트라이크를 기록했고, 선동열 감독이 빠르게 교체 카드를 빼어 들었다. 손영민이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했지

만 5회말 뼈아픈 실책이 KIA의 발목을 잡았다. 김성현의 2루타에 이어 김강민의 좌전 안타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좌익수로 선발 출전한 윤완주의 약속구가 나오면서 3루주자 김성현이 홈을 밟았다. 최정의 적시타가 이어지면서 점수는 0-2가 됐다. 6회 2사에서 김성현·김강민이 연속 안타를 터트리며 1점을 더했다. 타선의 침묵은 계속됐다. 전날 경기에서 나지완의 솔로홈런으로 겨우 1점을 뽑아냈던 타선은 김광현을 맞아 단 하나의 안타를 뽑아내는데 그치며 영봉패의 수모를 당했다. 무기력한 타선에 집중력 잃은 수비도 패인이 됐다. 18일 1루수 조영훈의 실책이 빌미가 돼 점수를 내줬던 KIA는 19일에는 윤완주의 실책으로 무너지면서 6연패의 늪에 빠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신궁' 기보배 무등야구장서 시구 쏜다

21일 KIA-LG 경기서

'신궁' 기보배가 무등경기장 마운드에 오른다. 런던올림픽 양궁 2관왕인 기보배(광주시청)가 오는 21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리는 KIA와 LG와의 경기에 시구자로 나선다.

KIA는 "투혼과 불굴의 의지로 올림픽 양궁 2관왕을 달성하며 지역민은 물론 전국민들에게 진한 감동을 선사한 기보배의 활약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이번 시구 행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0 광저우아시아게임 여자 양궁 단체전



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기보배는 지난 13일 막을 내린 런던올림픽에서는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한편 광주여대에서 제2의 양궁 인생을 연 기보배는 현재 광주시청 선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기동 아쉬운 2경기 연속골

광주 FC 첫 3연승 무산

대전에 1-2 아쉬운 패배



광주 FC의 첫 3연승 도전에 실패로 돌아갔다.

광주 FC가 지난 18일 광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K리그 2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를 기록했다.

지난주 '난적' 제주와의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던 광주는 대전을 상대로 창단 후 첫 3연승을 노렸지만 수비가 흔들리며 고개를 숙였다.

물오른 이승기와 박기동이 매서운 슈팅을 날리며 대전을 위협했지만 전반 26분 아쉬운 파울이 나왔다.

문전 경합과정에서 수비수 정우인이 파울을 기록하면서 페널티킥을 허용했다. 대전 김태연이 키커로 나서 골을 성공시키면서 0-1. 전반 33분 테하의 골까지 이어지면서 0-2가 됐다.

후반 18분 박기동의 두 경기 연속골이 터졌다. 중앙에 있던 주양파울로가 오른쪽으로 공을 찰러주었고, 공을 잡은 박기동이 오른발 슈팅을 날리며 대전의 골문을 흔들었다.

분위기가 오른 광주는 공세를 강화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지만 대전 골키퍼 김선규의 선방에 막히면서 추가골을 넣는데 실패했다.

한편 18일 FC 서울과 수원 삼성이 맞붙은 서울월드컵경기장에는 5만787명의 관중이 찾아 올 시즌 K리그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이 세워졌다. 이날 올림픽 동메달 주역인 홍명보 감독과 기성용, 박주영이 경기장을 찾아 팬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경기는 라몬치치가 두 골을 몰아 넣으며 수원외의 2-0 승리로 끝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공격수 박기동이 지난 18일 대전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트린 뒤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추신수 끝없는 트레이드說

로이터 "8월 중 성사"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가 이르면 이달 안에 트레이드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통신은 추신수가 내년 시즌이 끝난 뒤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취득하고 그의 에이전트가 스콧 보라스라는 점을 고려할 때 클리블랜드에 잔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클리블랜드 역시 추신수가 내년 시즌이 끝나고 나서 FA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추신수가 트레이드될 것은 확실하며 시기만이 남

았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어 추신수의 트레이드가 이달 안에 이뤄질 수 있으며 늦어도 내년 트레이드 마감 일 전에는 성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손가락 수술, 옆구리 통증, 음주 과음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최악의 성적을 남긴 추신수는 올해 멋지게 재기했다.

추신수는 타율 0.284, 출루율 0.368, 장타율 0.470을 기록하며 타점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 홈런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14개를 쏘아 올렸고 2루타 35개는 팀 내 최다이자 아메리칸리그 3위에 해당된다. /연합뉴스



'對日 저 자세' 혼쫓난 체육회장 "日 체조복장 공동대처"

"더 큰 불이익 우려 IOC 조치 받아들였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최근 런던 올림픽에서 일본 체조선수가 군국주의의 상징인 '육일승천기'를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입은 것과 관련, "2차대전 피해 당사국들과 공동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고문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같이 대응해야지 효과가 있지 혼자 하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어떤 식의 항의가 효과적인지 연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IOC(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박종우 선수의 메달 수여 보류 통보를 받았을 때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불참시 선수단 전체의 메달 박탈 등의 불이익이 우려돼 IOC 조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